

July  
2018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July  
2018

##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KEB 하나은행**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리

## 6월 동향 미국과 유로존 등 긴축움직임 강화 속에도 미-중 무역갈등 심화 요인이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확대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유로존 정치리스크 완화, 연준과 ECB의 긴축 움직임 강화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견인

6월 중반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도 국내외 금리 방향성은 미-중 무역갈등 등 요인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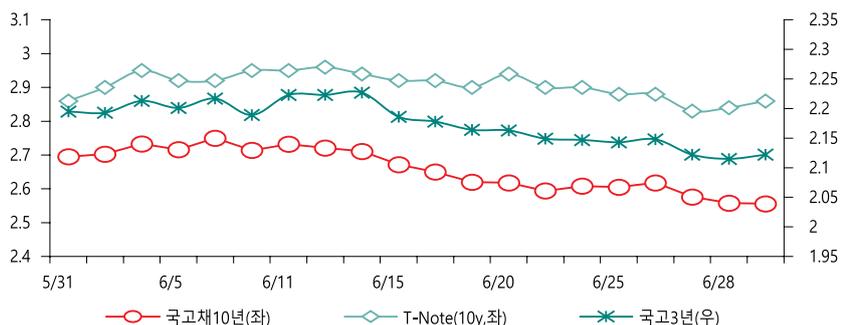
6월 후반, 국내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한은 금리 인상 약화 가능성 속 월 말까지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 월 초, 伊 정치불확실성 완화, ECB 양적완화 종료 움직임,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6월 FOMC 금리인상 전망에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6월 초, 전월말 불거졌던 이탈리아 정치리스크가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ECB의 양적완화 종료 시그널이 강해지며 글로벌 금리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
  - 여기에 5월 미 고용지표의 개선이 지속되며 6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이후 점도표 상향 가능성이 접쳐진 점도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에 영향
- 6월 중반, 북미 정상회담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연준의 6월 금리인상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견인.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전환
  - 6/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신인도 제고 영향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연준의 통화긴축 영향이 일시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내 ECB의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금리유지 전망 및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미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국고채 금리의 하락 전환을 견인
- 6월 후반,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 속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영향이 월 말까지 유지되며 안전자산 선호 우위 속 국고채 금리 하락 마감
  - 6월 후반, 국내 고용지표의 부진 및 소비자심리지수의 14개월 연속 낮은 수준 유지 등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
  -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이 월 말까지 이어지며 향후 국내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에 따라 채권시장 강세 속 국고채 금리 하락

### 6월 평균

국고채(3년): 2.17%  
 국고채(10년): 2.66%  
 T-Note(10년): 2.9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7월  
전망

미-중 무역갈등 및 연준 매파 성향에 따른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이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력 약화도 국고채 금리의 전반적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국고채(3년, %)	2.24	2.21	2.25	2.30

- 최근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수출증가율 감소 등 국내 하방리스크 확대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약화
  - 국내 5월 고용지표 부진 속 6월 물가상승률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둔화가 예상되는 점 등이 국내경기의 향후 하방리스크 요인
  - 주요 국가들의 긴축 움직임 속에서도 국내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의 추가금리 인상 전망이 연내 1회 이하로 낮아진 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중 무역갈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확대 등 대외 요인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요인들이 전반적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이 중국 뿐 아니라 EU, 캐나다 등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세계교역 축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가 예상되는 바,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매파적 성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위기설이 여전히 진행형인 점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및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전반적 국고채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듯
  - 증시부문과 달리,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채권부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수급적 관점에서 국고채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7월 국고채 금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의 우위 속에 미국채 금리와의 동조화가 다소 약해지며 소폭 하락 전망되는 가운데 2.05%~2.20% 흐름이 예상

국내 주요 경제지표 부진 속,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및 기대 약화

보호무역주의 여파 및 연준의 매파 성향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

7월 국고채(3년) 금리는 2.05%~2.20%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호한 미 경제흐름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중국 무역 갈등 외 EU, 캐나다 등과의 대립각 심화로 위험회피 강화</li> <li>· 제한적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가능성</li> <li>· 국내 경제지표 부진 속에 금통위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 가능성</li> </ul>

# 달러/원 환율

## 6월 동향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상 속에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영향이 국내증시 외국인 이탈을 견인하며 1,120원대 안착

월 초, 이탈렉시트 완화 및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등으로 하락 출발

- 6월 초, 이탈렉시트 완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1,06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출발
  - 6월 초, 환율은 전월의 이탈렉시트 완화 영향과 월 중반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06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출발
  - ECB의 출구전략 기대감도 달러 강세를 제한함에 따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상 속에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가 달러 강세 견인

- 6월 중반,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제한 속에, 6월 연준의 금리인상과 ECB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소식이 달러 강세를 견인파
  - 6/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 결과로 마무리 되었음에도 외환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 영향은 제한되는 양상
  - 반면, 13~14일 연이은 FOMC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금리차 확대 영향, ECB의 연내 양적완화 종료 속 마이너스금리 내년 상반기 유지 소식에 따른 유로 약세 및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이슈로 달러화가 급격히 강세 흐름을 보이며 1,110원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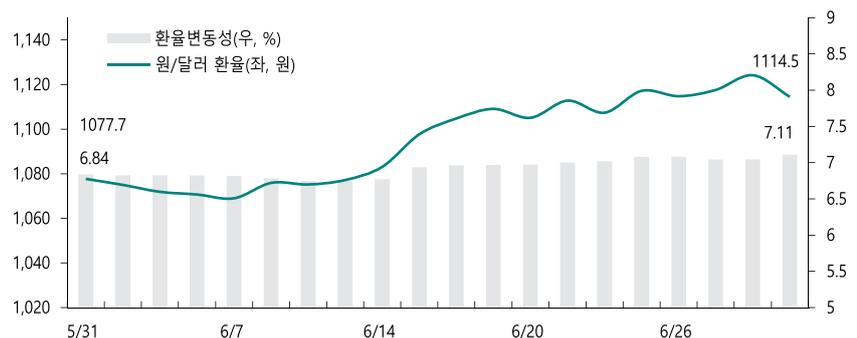
미국 보호무역 재점화 속 중국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1,120원대 진입

- 6월 후반,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발언 속 미-중 무역갈등 지속,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 고시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하며 1,120원대 진입
  - 6월 후반, 연준의장의 미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속에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이어지며 28일 1,120원 상향 돌파
  -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절하 영향이 더해지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환율은 전월대비 36.8원 상승한 1,114.5원으로 마감

6월 달러/원 평균환율 : 1,095.1원

6월말 달러/원 환율 : 1,114.5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7월 전망** 월 초반 미중 무역분쟁 지속이 위험회피심리를 견인하는 가운데, 중반을 넘어서며 대내 금리차 확대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 지속이 환율 상단을 소폭 높일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sup>F</sup>	2018. 4Q <sup>F</sup>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9.9	1,115	1,125

- 미-중 무역갈등에 의한 국내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속에 위안화 절하 영향에 원화 동조화의 심화 전망으로 월초 안전자산 선호 강화 예상
  -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실행 시점인 6일 전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 속에 자동차관세 부과 이슈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킬 전망
  -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을 고려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추세에 동조된 원화의 추가 약세가 당분간 이어지며 소폭 상단을 높일 전망
- 최근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 미국 경기 호조를 반영한 미 연준의 매파적 시각이 월 전반에 걸쳐 달러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전월 연준의장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최근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미국경제의 전반적 호조 지속으로 연준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다음 금리인상 시점 전까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국내 수출경기 위축 우려 속 대내 금리차 확대 영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지속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대내적으로 수출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러한 무역갈등 요인과 대내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자 유출을 강화시킴에 따라 7월 환율은 1,100원~1,130원 범위로 상단을 높여갈 전망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 영향이 월초 원화 약세를 견인할 전망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시각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7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00원~1,130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증시 자금 유출 지속 가능성</li> <li>· 미-중 무역갈등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30원대에서의 수출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li> </ul>

# 엔/원 환율

## 6월 동향 **달러 강세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해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원화 약세 심화, 이에 엔/원 환율 상승**

엔/원 환율 전월대비 26.9원 상승한 1,007.0원에 마감

-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 및 미-중 무역분쟁, 유로화 약세 심화 등 다수의 안전자산 선호 요인에 의해 엔/원 환율은 전반적인 상승세 시현
  - 월 초, 신흥국 불안 및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된 영향으로 엔/원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듯 하였으나 6월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상승 전환
  - 월 중반, 연준의 연내 4회 금리인상 시사와 ECB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강화시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야기.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더해지며 한국 등 신흥국 통화 절하 심화 속 엔/원 환율 큰 폭 상승
  - 월 후반, 미-중 무역분쟁 진정과 EU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 합의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킴에 따라 엔/원 환율 하락 전환

## 7월 전망 **미국발 달러 강세가 달러/엔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신흥국 불안에 따른 원화 추가 약세 가능성이 엔/원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달러/엔 환율의 제한적 상승 전망

- 미-중 무역분쟁 및 7월 FOMC 등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달러/엔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6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시 발생할 무역충돌은 달러 강세를 견인하여 달러/엔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7월말 FOMC 및 BOJ금정위를 앞두고 월 후반으로 갈수록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달러/엔 환율은 상승 전망됨

엔/원 환율 상승 우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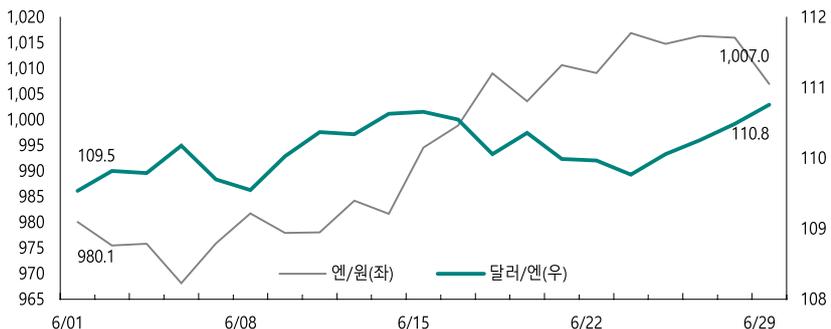
- 달러 강세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엔/원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 영향이 엔/원 환율 추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 이후 무역분쟁 완화시 환율 하락 전환 가능성 상존
  - 7월 FOMC의 대파적 기초 재확인시,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환율 상승 전망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6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0.1엔

6월 엔/원 평균환율 : 994.1원

7월 엔/원 예상 범위 : 975원~1,03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 6월 동향 **예상보다 느린 ECB 금리인상 전망 등 유로 약세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정치리스크 완화, 신흥국 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원 상승 시현**

- 유로존 정치 불안 완화 속 원화 약세 심화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상승
  - 월 초, 이탈리아 정치 불안 완화에 유로/원 환율 상승 출발
  - 월 중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로 유로 약세 심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상대적 달러 강세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 유로/원 상승 속 미-중 무역분쟁은 원화 약세를 심화시켜 환율 추가 상승을 견인
  - 월 후반, 유로화 저가 매수 및 EU정상회의의 난민 문제 합의로 독일 연정 갈등 우려가 완화되며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 유로/원 환율 추가 상승 지속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41.0원 상승한 1,297.3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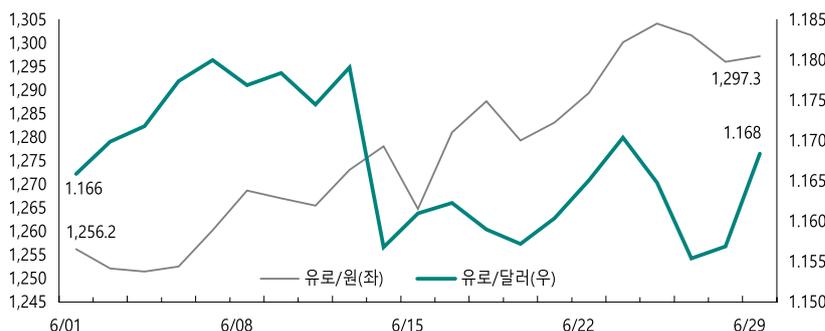
## 7월 전망 **EU 난민 문제 합의에 따른 유로화 강세 속 미-중 무역갈등 및 ECB 완화적 스탠스 등이 유로/달러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유로/원 환율은 글로벌 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상승 전망**

- 유로존 정치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로/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되나 유로화 약세 요인이 다수 상존하여 환율 상승이 제한될 전망
  - EU정상회의 이후 유로존 정치 리스크 완화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유로/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독일 연정 내 균열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큰 폭 상승은 제한될 전망. 미-중 무역갈등 지속 및 7월 ECB 통화정책회의(7/26)의 비둘기적 스탠스 재확인도 유로/달러 환율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글로벌 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와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진정은 유로/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로/원 환율 상승세 지속 전망
  - 유로존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유로/원 환율 상승 예상

유로/달러 환율의 제한적 상승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6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67달러

6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6.7원

7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85원~1,33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4/4	1/4	4월	5월	6월
전 산업 생산	2.3	-0.7 [-0.2]	0.7 [0.3]	2.0 [1.5]	1.7 [0.3]	
제조업	1.6	-4.8 [-1.1]	-2.8 [-1.3]	0.6 [3.3]	0.8 [1.2]	
서비스업 생산	1.9	0.9 [0.2]	2.6 [1.0]	2.7 [0.0]	2.3 [-0.1]	
소매판매액	1.9	2.1	5.0	5.5	4.6	
설비투자	14.1	2.0	9.4	1.3	-4.1	
건건설기성액	10.1	-0.5	1.5	1.5	0.0	
경기선행지수	-	-	-	100.1	100.0	
실업률 (%)	3.7	3.2	4.3	4.1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6 [0.1]	1.5 [0.1]	1.5 [-0.2]
경상수지 (억달러)	-	-	-	17,682		
상품수지 (억달러)	-	-	-	103,58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1.5	13.5	-0.1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4.5	12.6	10.7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190	2,246	2,172
KOSPI (월말)	-			2,515.4	2,439.0	2,326.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1	2018.2	2018.3	2018.4	2018.5	2018.6
미국 USD	1,067.8	1,083.1	1,063.6	1,068.2	1,077.8	1,114.6
일본 JPY(100)	979.0	1,016.4	999.7	978.1	991.6	1,007.0
유로 EUR	1,328.6	1,324.3	1,309.4	1,295.3	1,257.3	1,297.3
영국 GBP	1,518.7	1,493.3	1,487.5	1,473.9	1,436.7	1,472.7
중국 CNH	169.3	171.1	169.7	169.2	168.4	167.8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종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종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7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b>1</b> 한 6월 무역수지 (\$6,731.0M) - 수출/수입 (13.5%/12.6%, YoY)	<b>2</b> 중 6월 Caixin 제조업 PMI(51.1) 독 6월 Markit 제조업 PMI[F](55.9) 유 6월 Markit 제조업 PMI[F](55) 5월 유로존 PPI(0.0% MoM, 2.0% YoY) 미 6월 Markit 제조업 PMI[F](54.6) 5월 건설지출(1.8%, MoM) 6월 ISM 제조업지수(58.7)	<b>3</b> 한 6월 CPI(1.5%, YoY) 미 5월 제조업수주(-0.8%)	<b>4</b> <b>豪 RBA</b> 한 6월 외환보유고 (\$398,98B) 중 6월 Caixin 서비스/종합PMI(52.9/52.3) 독 6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3.9/54.2) 유 6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5/54.8) <b>호 RBA 기준금리(1.50%)</b> 5월 소매판매(0.4%, MoM)	<b>5</b> 한 5월 경상수지(\$1,768.2M) 독 5월 공장수주(-2.5%, MoM) 미 6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6.5/56) 6월 ISM 비제조업지수 (58.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 FOMC 의사록	<b>6</b> 독 5월 산업생산[SA] (-1.0%, MoM) 미 6월 고용통계 - 실업률(3.8%) - 비농업부문고용자수변동(223K) - 시간당평균임금(0.3%, MoM) 5월 무역수지(-\$46.2B)	<b>7</b>	
<b>8</b>	<b>9</b> 중 6월 외환보유고 (\$3,110.62B) 일 5월 경상수지(¥1,845.1B) 미 5월 소비자신용지수 (\$9,262B)	<b>10</b> 중 6월 CPI/PPI (1.8%/4.1%, YoY) 독 7월 ZEW 경기기대지수 (80.6) 유 7월 ZEW 경기기대지수 (-12.6)	<b>11</b> 일 5월 핵심기계수주 (10.1% MoM) 6월 PPI(2.7% YoY) 미 5월 도매재고[F] 6월 PPI/Core (0.5%/0.3%, MoM) (3.1%/2.4%, YoY)  NATO 정상회의[~12]	<b>12</b> <b>韓 금통위</b> 한 BOK 기준금리(1.5%) 독 6월 CPI[F] 유 5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9%, MoM) 미 6월 재정수지(-\$146.8B) 6월 CPI/Core (0.2%/0.2%, MoM) (2.8%/2.2%, YoY)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13</b> 중 6월 무역수지(\$24.92B) - 수출/수입 (12.6%/26.0%, YoY) 일 5월 광공업생산[F] 미 6월 수출/수입물가 (0.6%/0.6%, MoM)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P]  Fed's Bostic Holds Town Hall Chat in Northern Virginia	<b>14</b>	
<b>15</b>	<b>16</b> 미 6월 소매판매 (0.8%, MoM) 7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25)	<b>17</b> 미 6월 광공업생산 (-0.1%, MoM)	<b>18</b> 유 6월 유로존 CPI (0.5% MoM, 1.9% YoY)  미 연준 Beige Book	<b>19</b> 일 6월 무역수지 (-¥578.3B) - 수출/수입 (8.1%/14.0%, YoY) 미 7월 필라델피아연준 경기전망(19.9) 5월 경기선행지수(0.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20</b> 한 6월 PPI(2.2%, YoY) 일 6월 CPI(0.7%, YoY) 독 6월 PPI(2.7%, YoY)	<b>21</b>	
<b>22</b>	<b>23</b> 미 6월 시카고연방 국가 활동 지수(-0.15) 미 6월 기준주택매매 (5.43M, -0.4%)	<b>24</b> 독 7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유 7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0.1%) 7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7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b>25</b> 독 7월 Ifo 기업합경지수 (101.8) 미 6월 신규주택매매 (689K, 6.7%, MoM)	<b>26</b> <b>韓 GDP, ECB 통화정책회의</b> 한 GDP 2Q[P] (2.8, YoY) 독 8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유 ECB 기준금리(0.00%) 미 6월 내구재 수주[P] - 운송제외 - 항공기제외비국방 자본재수주 6월 도매재고[P]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27</b> 미 2Q 개인소비[A] 2Q GDP 연간화 QoQ[A]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F]	<b>28</b>	
<b>29</b>	<b>30</b> <b>BOJ 금정위[30~31]</b> 일 6월 소매판매[P] 미 7월 앨리스연준 제조업 지수	<b>31</b> <b>美 FOMC[~8/1]</b> 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비제조업 중 7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일 BOJ 기준금리(-0.10%) 6월 광공업생산[P] 미 5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7월 컴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6월 개인소득/소비 7월 시카고PMI  한 금통위 의사록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안은 이전치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